



재미한국학교협의회 |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4109 Tall Oak Co., Lambertville, MI 48144 • 734.856.1455 • www.naks.org

재단법인

김 구 재 단

제 3 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대회 응모작품



학생 성명	한글	이혜준	영어	Heajune Lee
지도교사/이메일	성명	한종은	이메일	jongeun88@yahoo.com
소속 학교	Silicon Valley (SVKS)			한국/한글학교
소속 협의회	북가주 한국학교			지역협의회
학년/생년월일	8	학년	1999	년 1 월 17 일
제목	내가 본 김구 선생님의 얼굴			

응모 번호

(이 난은 기입하지 마세요)

줄 아래 화살표에서부터 쓰기(타이핑) 시작하십시오.

⇒독립기념관에는 일제시대에 활동했던 임시정부 분들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밀랍 인형으로 가득찬 방이 있습니다. 방을 쪽 돌아보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삶을 바친 이들의 조용한 용기가 밀랍으로 만든 눈에서도 비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십 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형중에서도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맨 앞줄, 불이 가장 밝게 비치는 자리에,검정색 두루마기와 두꺼운 안경을 쓰고 계신 분입니다. 왁스가 숨길 수 없는 선명한 얼굴은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얼굴입니다.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써 너무 많은 압력을 겪었는지, 백범은 의자 등에 무겁게 기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한 나라의 독립에 대한 희망이 빛나고, 퍼진 손에는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일제시대 동안 나라를 이끌어 준 이 분이 돌아가신지는 벌써 육십사년이 지났지만, 이 분의 헌신에 대한 기억은 이 밀랍 인형의 곳곳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김구 선생님의 얼굴을 처음 보면, 어린시절에 생긴 붉은 마마 자국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1876년에 태어난 ‘김창암’의 삶은 어렸을 때 부터 어려웠습니다. 몰락한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나서, 천연두에도 걸렸지만,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과거시험에서 떨어졌고, 두 부모님도 몇년 후에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마 자국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이런 어려움들은 백범의 미래를 훈련시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겪어도, 산을 넘고 또 다른 산을 넘듯이, 계속 노력하는 정신력을 키워서, 대한민국의 독립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마 자국 다음으로 백범의 밀랍 인형에서 보이는 것은 이마에 난 깊은 주름입니다. 주름이 하나둘씩 모여서, 김구를 점점 약하게 보이는 노인으로 만들었지만, 이 모든 주름 뒤에는 깊은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10년에서 1945년까지의 시간은 한국의 역사에서 아주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김구와 같은 독립투사들은 평화로운 방법을 추구할 때도 있었지만, 전쟁이 더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많았습니다. 일본의 왕을 타도하기 위해, 김구는 ‘스치다’라는 일본인을 죽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청년들을 모아 일본의 중요한 인물들을 죽이기 위해 암살단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를 이끌어 준 김구 선생님은 자기보다 어린 청년들을 이런 위험으로 보낼 때마다, 걱정하고, 또, 그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면서 점점 육체의 나이가 늘어갔습니다. 암살을 시도했던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일본경찰에게 끌려가 직접 고문을 받기도 했지만, 암살을 시도한 청년들의 고통과

그들의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백범의 마음과 얼굴에는 점점 주름이 생겨 갔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에 굉장한 힘이 된 김구는 다른 임시정부 요인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스치다’를 암살하고 들어간 감옥에서 탈출해서 나와 몇년후,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과의 관계 때문에, 백범은 또 다시 삼년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있을 동안 너무 심한 고문을 겪어, 왼쪽 귀를 영구히 다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쪽 귀에 상처를 입은 김구는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을 수 있는지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상처를 받을 때마다, 김구는 이름을 바꾸어, 더 많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 독립을 위해 일을 계속했습니다.

일본과의 싸움 중,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삶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매일 같이 일본경찰에게 잡혀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감옥으로 자주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은 가족과 나라를 위한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에 대한 희망과 삶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얼굴에는 곳곳에 흉터들이 많았지만, 눈가의 주름을 보면 김구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많은 미소와 웃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눈가의 주름을 통해 김구 선생님이 가졌던 삶의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조국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언젠가 꼭 조국을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오는 희망일 것입니다.

28 살에 최준례와 결혼한 백범에게는 두아들 김인과 김신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따로 살아야 했고, 십년에 한번씩 밖에 못 만나기도 했지만, 자기 가족과 비슷한 처지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김구 선생님은 끊임없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을 했을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가족에 대한 사랑은 더 넓게 퍼지고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믿음은 김구 선생님께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병으로 돌아가신 백범의 어머니도,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가족들이 선생님께 가졌을 자랑스러움 또한 김구 선생님의 눈가의 미소와 함께 만들어진 주름에서 느껴집니다. “얼굴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김구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했던 말처럼, 긍정적인 김구 선생님의 태도와 미소는 주변 독립운동가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김구 선생님과 함께 임시정부에서 요인으로 일하셨던 증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십니다. 사진으로만 본 두 분이지만 할머니를 통해 두분의 이야기와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선 증조 할머니께서 임신을 하셨을 때, 고기를 먹어야 뱃속의 아기가 잘 크다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특별히 고기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증조 할머니는 태어나서 가장 맛있게 그 고기를 드시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증조 할머니를 생각해서 돈을 모아 고기를 사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님의 얼굴에서 눈의 띄는 것은 안경입니다. 임시정부의 가장 높은 자리의 지도자셨던 김구 선생님은 금으로 만들어진 멋진 안경이 아닌 동그랗고 검은 아주 검소해보이는 안경을 쓰셨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평생을 검소한 보통 사람처럼 살기 위해 옷차림도 검소하게 입으셨고, 필명도 보통 사람이라는 뜻으로 ‘백범’이라고 지으셨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사실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 어린 시절에는 보통 아이들처럼 보통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미래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고능선’ 선생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 우리 나라의 역사를 바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가지를 잡고 나무에 오르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벼랑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을 수 있다면 대장부로다.”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한 노력이 많아지자, 김구 선생님은 고능선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억해 이름을 ‘김창수’에서 ‘김구’로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김창암’과 ‘김창수’의 능력을 합친 김구 선생님은 검소한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9 년동안 열심히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도하셨습니다.

1949 년, 백범 김구 선생님은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유산은 기념관들의 밀랍 인형과 직접 쓰신 ‘백범일지’를 통해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백년이 넘게 시간이 흐른 뒤, 미국에 사는 저에게도 김구 선생님의 말씀과 일생이 가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백범일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 적혀져 있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못보고 돌아가신 김구 선생님, 하지만 선생님의 밀랍 인형은 독립기념관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